



Exploring Fundamental Concepts of Nature Sports*

Hyeong KANG¹, Won Jae SEO²

Received: September 05, 2024. Revised: September 18, 2024. Accepted: September 18, 2024.

Abstract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concepts and features of nature sports. In specific,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discussing historical background of nature sport and its relationship with related fields including conservation, tourism, and edu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approach. For this, the study collected prior studies and reports via google scholar. Further the collected studies were analyzed and major issues regarding concepts and features of nature sport were presented. **Results:** For results, various definitions of nature sports and similar activities were presented. The study found that nature sports labelled action sports, adventure sports, alternative sports, Californian sports, extreme sports, gravity sports, lifestyle sports, nature challenge activities, new sports, outdoor sports, panic sports, risk sports or whiz sports, among others. Nature sport involve interacting with a natural or material feature, rather than with other human beings. Furthermore, this study discovered features of nature sport, including nature based activities, sustainable activities, adventure and risk activities, hedonistic and non-competitive activities, and autonomous and individualistic activities. **Conclusions:** Nature sport has its own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with traditional sport, yet it shows similarities with constructive sport in terms of perceived benefits and so forth.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Nature sport, conceptualization, characteristics of nature sport, Conservation, Sustainability

JEL Classification Code: D6, H53, H72, I31, L83

1. Introduction

20 세기 초반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산악등반, 하이킹, 캠핑, 걷기, 낚시, 서핑, 스킨스쿠버, 스키 등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자연 스포츠(nature spor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동안 자연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는 아웃도어, 에코스포츠, 뉴스포츠, 모험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의 다양한 용어와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되었다. 최근 들어 환경파괴없는 지속적인 여가활동으로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을 대상으로 사회 인문학적, 운동 생리학적, 그리고 산업적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대상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그 특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연 대상 스포츠가 기존의 구조화된 스포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의문도 여전하다. 과연 자연 대상의 비경쟁적 신체활동이 스포츠로 분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 또한 존재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활동의 생성 배경과 철학적 의미,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고찰은 자연, 인간, 그리고 스포츠의 학문적 관계 설정과 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코스포츠, 아웃도어, 모험스포츠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온 자연대상 스포츠에 대한 고찰과 특히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온 이들 활동을 자연스포츠(nature sport)라는 범주로 분류하여, 자연스포츠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그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구조화된 스포츠와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4.

1 First Author, Graduate Course, Department of Sport Convergence,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basshohyeong@naver.com

2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wonjaeseo@eulji.ac.kr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 Research Methods

본 연구는 자연스포츠의 개념적 고찰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 고찰(Integrative review)을 실시하였다. 통합적 고찰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로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를 동시에 다루게 된다 (Oh & Kim, 2014). 통합적 고찰을 위해 핵심 단어(key word)를 준거로 설정하여 한정된 문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자연, 아웃도어, 스포츠, 개념, 역사를 핵심 단어로 설정하여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 수집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KCI 에 등재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구글 스칼라를 통해 검색된 SSCI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논문 및 보고서의 내용 중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스포츠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리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포츠의 개념, 역사적 배경, 그리고 특성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3. Results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연대상 스포츠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자연스포츠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3.1. Conceptualization of Nature Sport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연스포츠(nature sports)는 액션 스포츠, 모험스포츠, 대체스포츠, 캘리포니아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그라비티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자연 도전활동, 뉴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 패닉 스포츠, 위험 스포츠 또는 바람스포츠(whiz sports)으로 분류되기도 한다(Booth & Thorpe, 2007; Bourdieu, 1979; Davidson & Stebbins, 2011; Midol & Broyer, 1995; Pociello, 1981; Rinehart & Sydnor, 2003; Wheaton, 2016). 또한 자연스포츠는 참여자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관람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신체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Wheaton, 2016).

자연스포츠는 익스트림 스포츠 등 이상에 언급된 스포츠들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스포츠와 이들의 지배적인 가치를 거부한다는 사회문화적 공통점이 있다(Booth & Thorpe, 2007; Bourdieu, 1979; Rinehart & Sydnor, 2003; Wheaton, 2016). 비슷한 맥락으로 현대 스포츠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문화적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스포츠 대회 대부분은 인종, 계급과 성(gender)의 관계, 우성적인 인종 등 그 사회와 시대를 둘러싼 지배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저항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ndrews, 2006; Fairclough, 2001; Whannel, 2009).

자연스포츠는 1960, 70년대 북미에 기원을 둔 뉴스포츠 패러다임의 팽창이후 출현하였으며, 레저활동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와 새로운 가치에 발맞추어 성장하면서 현대 스포츠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스포츠 개념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스포츠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윈드서핑,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과 같은 새로운 활동의 등장과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했던 서핑 문화의 출현 그리고 암벽등반과 같은 기존 스포츠문화의 변형된 활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Wheaton, 2016). 한편 유럽에서는 두가지 과정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중산층인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서핑, 윈드서핑, 프리 플라잉(free flying) 등의 뉴스포츠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또 다른 형태로 스키, 카누와 같이 기존의 스포츠를 변형시킨 산악스키나 프리스타일 카누 등의 자연스포츠 활동이 전개되었다(Melo & Gomes, 2017).

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연스포츠는 참여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험요인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Wheaton, 2016). 이에 반해 일부 학자들은 자연스포츠의 특성을 위험중심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참여자들이 건강, 웰빙, 자연과의 의미있는 교감을 도외시한 채, 단지 스릴과 흥미에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지닌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Collins & Brymer, 2018).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는 자연스포츠 참여가 스릴이나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라는 측면을 넘어, 긍정적인 정신건강 프레임워크로 새롭게 개념화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연스포츠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확산에 대해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신체활동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의 경계를 구분하고 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자연스포츠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특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시 자연스포츠는 여가와 관광 산업, 환경,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스포츠 영역으로서 이해되고 표현되어왔다. 자연스포츠가 환경보호라는 윤리적 가치와 자연스포츠를 연결시키는 활동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이러한 활동은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Booth, 2018), 자연스포츠는 교외 시골과 자연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 구성되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꾀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연스포츠는 항공(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등), 육지(산악자전거, 암벽등반, 트레킹 등), 그리고 물(카약, 서핑, 스킨스쿠버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3.2. Characteristics of Nature Sport

3.2.1. Nature based activities

자연스포츠의 첫 번째 특성은 자연기반 활동(nature based activities)이다. 자연스포츠는 환경적 보호물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의 아웃도어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자연 공간은 자연스포츠의 촉진을 위해 장비의 배치, 기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변경되기도 한다(Melo & Gomes, 2017). 따라서 자연스포츠 참여자에게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며 스포츠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자연 공간의 변경도 포함된다(Stebbins, 2019). 이러한 자연공간은 바다, 강, 계곡, 협곡, 산, 절벽, 바위, 숲, 동굴, 하늘 등이 해당된다. 자연스포츠는 이러한 자연과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파도, 중력, 기류, 바람, 비, 양지와 그늘 등과 같은 자연의 힘,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참여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Booth, 2018). 이는 자연스포츠 참여의 주요 동기요인으로서, 참여자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도시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과 새로운 감각, 감정을 체험하고 지루하고 뻘하고 통제된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Melo & Gomes, 2017).

물론 여기서 논하고 있는 자연스포츠 활동에 관한 시각은 도시공간(스케이보드), 인공환경(번지점프) 또는 실내공간(실내 암벽등반), 모토스포츠(모토크로스), 골프 등과 같은 스포츠를 포함하지 않는다(Bessy & Naria, 2005).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을 편협한 분석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상대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3.2.2. Sustainable activities

자연스포츠의 두 번째 특성은 환경 보존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sustainable activities)이다. 문명으로 인한 훼손이 없다면, 자연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다. 자연스포츠는 본시 자연과 직접 연결된 활동, 제품, 서비스이며, 생태계를 고려하는 소비활동과 깊이 관련된다(Melo & Gomes, 2017). 자연스포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활동이 되고 있으며, 목적지향적인 군집활동이 아닌 가벼운 개별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과 이에 상응하는 자연 보존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활동이 상호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Joaquim, 1997). 자연스포츠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험활동이자 에코 소비활동이다(Breivik, 2010).

이상의 자연친화적인 참여는 오늘날 삶의 방식이자 역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azaud(2004) & Pociello(1981)는 이를 스포츠의 자연주의와 초록화 경향이라고 말했다. Brymer & Gray(2009)는 자연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자연스포츠와 자연 사이에는 생태계 중심의 관계가 존재하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천성적인 힘이라고 규정했다. Gomes(2009)는 에코 투어리즘, 에코레저, 에코스포츠와 같은 에코활동들은 자연 상태의 야생과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연 스포츠는 이상적인 자연 장소에 대한 집착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완벽한 파도를 갈망하는 서퍼, 환상적인 활공장소를 찾는 패러글라이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트레킹 코스를 찾는 사람들의 명상적인 태도는 일종의 정신적 상징주의와 탐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Gomes 2009; Melo & Gomes, 2017).

3.2.3. Risk

자연과의 교감이외에 새로운 경험과 모험 추구, 위험에 대한 도전 또한 자연스포츠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Melo & Gomes, 2017). '자발적 위험감수' 행동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욕구해소에 대한 보상이나 적응의 형태로 발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스포츠 활동은 이러한 필수 욕구를 존중하는 이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Breivik, 2010).

그러나 자연스포츠 영역에서 모험과 위험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연스포츠에서 신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은 늘 목격되었다. 예를 들어, 울트라 마라톤 참가자들은 24 시간 이상 쉬지 않고 200km 이상의 코스를 완주하기도 한다. 더 높고 높은 산들을 정복하여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쓰고자 하는 관록 있는 모험가들조차도 이러한 시도들 주위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오늘날 자연스포츠 시장에는 실제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전혀 없지만, 참여자들이 상당한 위험을 지각할 수 있는 상업화된 활동들이 등장하고 있다(Melo & Gomes, 2017). 이러한 마케팅 노력들은 주로 커다란 도전과 성공을 뽐내고 싶어하는 초보자들을 타깃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스포츠 참여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지각하는 위험을 동경하고 심지어 쾌락을 느낀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Wheaton, 2016).

3.2.4. Sensation Seeking and Non-competitive

자연스포츠는 동료애, 교감, 흥겨움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발견하였고 이를 권장한다(Pociello, 1981). 선행연구는 사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다 자유로움을 요구하는 독자적인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Melo & Gomes, 2017; Wheaton, 2016). 이와 반대로 참여자에게 많은 몰입을 요구하는 조직화된 스포츠 예컨대 스포츠 클럽과 같은 구조화된 스포츠 조직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물론 해양보트, 윈드서핑,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서핑, 암벽등반 등과 같은 자연스포츠 중 일부는 올림픽 메달을 꿈꾸는 경쟁적 성격을 지니긴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연스포츠 활동은 전통 스포츠 또는 대중적인 스포츠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자연스포츠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자연 혹은 물질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지향하며, 참여자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Krein, 2014). 따라서 자연스포츠는 본시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비공격적인 활동이라는 특성이 있다(Wheaton, 2016). 즉 자연스포츠 참여자의 행동과 이들이 선호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지각하는 효익은 다른 스포츠 참여자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자연스포츠 참여자들도 건강과 신체적 유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전통스포츠와 다소 다른 형태의 동기를 지닌다. 예컨대 이들은 자연스포츠 경험과 결부되어 있는 감정의 상태(emotional state)를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평온의 상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Butts, 2001). 이러한 감정상태의 전환은 형이상학적인 영성(spirituality)과 초월적 감각(transcendence)을 불러일으키며, 참여자들은 '플로우', '스릴', '경외감', '승고함', '긴급함', '여유', '희열', '쾌락'과 '승고한 정신'을 경험한다 (Booth, 2018; Buckley, 2018; Stranger, 2011). 이는 경쟁과는 자연스포츠만의 정서적 유익이자 동기요인이다.

3.2.5. Autonomous Activities

카약이나 서핑처럼 하위문화를 형성하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포츠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연스포츠는 그 형태나 태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을 띤다 (Wheaton, 2016). 자연스포츠에서 참여는 격식이 없는 환경 즉 조직이나 클럽 혹은 어떠한 외부 규정이 없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Wheaton, 2016).

이러한 점에서 자연스포츠는 시공간적, 제도적 자율성을 상징한다. 장소의 자율성은 참여자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활동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서는 것을 뜻한다. 자연스포츠에서 장소는 바다, 하늘, 강 또는 산 등 개방된 지형을 뜻하며 인간의 영역에서 개방된 곳이다. 공간적 경계는 통상 지질학적으로 겹치는 곳이다. 예를 들어, 바다와 해변사이의 공간,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이 그러하다. 공간적 경계는 또한 산 정상에 오르는 능력 또는 산악자전거 코스를 타는 능력과 같은 신체능력과는 무관치 않다. 공간적 경계는 까다로운 코스를 오르거나 크고 위험한 파도에서 서핑하는 참여자의 기술과도 관련된다. Pociello (1981)에 따르면 이는 자연스포츠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시간적 자율성이란 타인과 무관한 개인의 흥미와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자연스포츠는 주중 혹은 주말, 아침이든 오후이든 간에 개인의 자유시간에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여전히 참여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연스포츠 활동의 주요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한다(Melo & Gomes, 2017).

끝으로 자연스포츠의 제도적 자율성이란 참여자가 스스로 자연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회그룹을 구성하고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도적 자율성은 또한 사회 조직적인 맥락에서 자율적인 형태에서 조직화된 형태까지 자유롭게 조직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Melo & Gomes, 2017). 자연스포츠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도움이 되는 참여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 자연스포츠는 관람보다는 참여 주도적인 활동이며,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적 표현, 태도, 사회적 정체성,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시간적 몰입을

내포한다(Wheaton, 2016).

4. Conclusion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자연스포츠(nature sport)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자연스포츠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자연스포츠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경쟁적, 구조적 특성을 지닌 전통 스포츠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연 스포츠는 자연기반활동이자 지속적인 환경보존 활동이며, 모험과 위험을 수반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각을 추구하는 비경쟁적 특성과 자율적인 개인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스포츠 활동으로서 자연스포츠가 지닌 기능적 의미는 상당하다. 이밖에 선행연구는 자연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산, 바다, 강, 하늘과 같은 자연을 상대로 한 자연스포츠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포츠 참여는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투어리즘과도 무관치 않다. 나아가 스포츠와 자연이 지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영역에서 운동장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이동하여 여행을 동반한 자연스포츠의 체험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자연스포츠와 타 영역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연계산업을 통한 산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ndrews, D. L. (2006). *Sport–Commerce–Culture: Essays on sport in late capitalist America*. New York: Peter Lang.
- Bessy, O., & Naria. (2005). "Les enjeux des loisirs et du tourisme sportif de nature dans le développement durable de la Réunion." In *Management et marketing du sport: du local au global*. Paris: Éditions Septentrion.
- Booth, D. (2018). Nature sports: Ontology, embodied being, politics. *Annals of Leisure Research*, 23(3), 1-15.
- Booth, D., & Thorpe, H. (2007). *Berkshire Encyclopedia of Extreme Sport*. Great Barrington: Berkshire Reference Works.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Editions de Minuit.
- Breivik, G. (2010). Trends in adventure sports in a postmodern society. *Sport in Society*, 13(2), 260–273.
- Brymer, E., & Gray, T. (2009). Dancing with nature: Rhythm and harmony in extreme sport participation. *Journal of Adventure Education & Outdoor Learning*, 9(2), 135–149.
- Buckley, R. (2018). Nature sports, health and ageing: the value of euphoria. *Annals of Leisure Research*, 23(1), 92–109.
- Chazaud, P. (2004). *Management du tourisme et des loisirs sportifs de pleine nature*. Voiron: Editions PUS.
- Collins, L., & Brymer, E. (2018). Understanding nature sports: a participant centred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facilitating of learning and performance. *Annals of Leisure Research*, 23(1), 110–125.
- Davidson, L., & Stebbins, R. (2011). *Serious leisure and nature: Sustainable consumption in the outdoor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Gomes, R. (2009). *El ocio y el deporte en la época del turismo global*. Apunts: Educación Física y Deportes.
- Joaquim, G. (1997). Da Identidade à Sustentabilidade ou a Emergência do «Turismo Responsável». *Sociologia Problemas e Práticas*, 23, 71–100.
- Krein, K. (2014). Nature Sport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41(2), 193–208.
- Melo, R., & Gomes, R. (2017). Nature sports participation: Understanding demand, practice profile, motivations and constraints.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6, 108–135.
- Midol, N., & Broyer, G. (1995). Toward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new sport cultures: the case of whiz sports in Franc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2(2), 204–212.
- Oh, J. J., & Kim, J. M. (2014). Determinant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1), 151-180.
- Pociello, C. (1981). *La force, l'énergie, la grâce et les réflexes. Le jeu complexe des dispositions culturelles et sportives*. Paris: Editions Vigot.
- Rinehart, R., & Sydnor, S. (2003). *To the extreme-alternative sports, inside and ou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ebbins, R. (2019). Sport and nature: a comment on their relationship. *Annals of Leisure Research*, 24(2), 249–254.
- Stranger, M. (2011). *Surfing life: Surface, substructure and the commodification of the sublime*. Surrey: Ashgate Publishing.
- Wheaton, B. (2016). *Lifestyle Sport*. London: Sage.
- Whannel, G. (2009). *Between culture and economy: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media sport*. London: Routledge.